

**200-67. 1. 중국공산당 상해 한인지부 책임 金命時에 대한 청취서(寫)**

**2. 内地의 조선공산당사건 공판상황**

- 1932년 8월 29일 신의주지방법원 검사정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앞으로 송부한, 治安維持法 違反事件 被疑者聽取書 寫本과 193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회에 걸쳐 일본 警視總監이 東京地方裁判所에서 있었던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및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사건의 공판에 관한 상황을 高等法院長, 同 檢事長, 各 覆審法院長, 同 檢事長, 各 地方法院長, 同 檢事正에게 송부한 문건 합철수록
- 첫번째 문건인 중국공산당 상해 한인지부 책임 金命時에 대한 청취서사(寫本)의 내용이다. 金命時는 경상남도 馬山郡 萬町 189番地에 本籍을 두고 住所는 不定인, 당 26세의 여자이다. 가족관계는 兄 金炯善 29세, 弟 金炯潤 23세, 妹 金福壽 16세, 姉 金仙伊 33세로, 父는 1922년 6월, 母는 1921년 12월 사망하였다.
  - 金命時는 홀로 滿洲, 露領을 거쳐 蘇聯의 東方勞力者共產大學을 나왔고, 上海에서는 呂運亨과 함께 『無産者新聞』을 발행하였다. 귀국해서는 權五高·黃守龍·金尙珠·金鳳壽·金炯善·金洵善·金容榮·尹允三 등과 함께 高麗共產黨青年會 활동을 하였다.
  - 상해에서는 鄭敬昌·安相勳·鄭炳旭·李建鎬·金應基·權五稷·朴長松·張曙星·鄭碩行·金一星·李永祥·姜翰·崔春澤·朴光一·崔澤燁·張道明·曹龍岩 및 金衡寬·高明子·呂運亨 등과 같이 활동하고, 1932년 3월 30일 신의주로 귀국 하다 검거되어, 임의 진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청취서는 141쪽에 달하며,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만세운동의 상황을 비롯하여 金命時가 체험한 사항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본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당시의 항일운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두 번째의 문건인 일본의 조선공산당 사건 공판 상황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판은 1930년 11월 25일 金秉國·金興燮·朴春星, 11월 27일 李起澤·許義淳·林鍾雄, 11월 29일 趙鶴濟·李愚震·李元賢, 11월 28일 李雲洙·金斗鎭·金錫舜, 12월 1일 朴得龍·朴魯珀·沈在潤, 12월 3일 李相勛·金正泓, 12월 4일 文基漣·尹壽巖·朴台乙, 12월 2일 姜映淳·鄭禧冕·金鳳禧·金秉國, 12월 5일 金鶴儀·金容杰·奉炳魯, 12월 6일 宋昌濂·宋在洪·金漢卿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13회의 공판 진행상황을 법정 밖의 상황, 공판정 내의 상황으로 구분하고, 법정 밖의 상황은 주로 조선인의 동정을 기록하였다. 공판정 내의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경찰의 고문에 의한 조서라고 주장하고, 일본공산당과의 통일재판 요구, 재판의 공개 요구, 정치적 범인의 즉시석방 요구, 공판정에서 모국어인 조선어 사용등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장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진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 이 문건은 문서번호 200-60 東京地方裁判所 豫審終結決定書(金漢卿 외 29명) (1930년)와 같은 사안으로 비교,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